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6호【주제 제25499호】주제 105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  
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  
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  
국장인 유헌상장 리영길동  
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유헌중장 박정현동지와 포  
병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  
한 때로부터 지난 20일 동  
안 포병부대들이 진행한 포  
병질중훈련실태를 보해 하  
시고 전군이 훈련일, 경쟁  
으로 더욱 세차게 뛰어번지  
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련합  
부대별 방사포병중대들의  
포사격경기를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방사포병중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 대련합부  
대별 포사격 순차에 따라 대기장지에서  
50m의 거리를 이동하여 강평원이 지적하  
는 목표에 1개 포로 시사를 하고 중대의  
모든 포들이 일제 사격을 한 다음 은폐하  
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평가와 순위는 원목표를 맞힌 포한  
의 발수와 화력임무수행시간에 따라 결정  
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사격경기진행형식과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백두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온  
일당백포병들은 화력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신속히 포진지로 기동하여 번개같이



포란을 장관하고 목표를 조준경안에 걸어  
넣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포병들  
의 화력복무동작을 바라보시면서 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높게 벌린것이  
알린다고, 포병들은 실전과 같은 정황들을  
조성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명중포란을 날릴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격구령이 내리자 경기참가자들은 적  
진을 일격에 물바다로 만들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명중포성을 울렸다.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촉음과 타래쳐  
오르는 홍면지, 흥날리는 포연속에 번개불  
파 같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기를 헤가  
르며 날아갔고 타격목표에는 불소나기가  
들썩워졌다.

멀적의 포신들에서 뿜어져나가는 포탄  
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열병광장에 모시려던 널원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도따라 기어  
이 이루고야말 일당백포병들의 실장에서  
터져나오는 강렬한 열탕의 불줄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명중  
이라고, 포란에 높이 달린것 같다고,  
포병들이 정말 포를 잘 쏜다고, 모두가  
저격수수준에 달달히 올라섰다고 뜻내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기참가자들은 평시 훈련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다져온 멀적의 포사격술로  
명중포성을 울림으로써 원쑤들이 목숨보  
다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조금이라도 건  
드리려고 달려들다면 씨도 없이 무자비하  
게 짓뭉개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멀적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련  
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가 성과

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진행한 포사격경기는  
포병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달려진  
전투임무와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신속히  
기동전개하고 성확한 사격체원준비관정과  
명중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질화한다면  
언제 어느때 명령이 내려도 명중포성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 주었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  
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자 조국통일대전  
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이라는 것을 명심  
하고 달이 제시한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 훈련  
에서 당정책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

화,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정을 훈련혁명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포병들을 한동  
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  
행할수 있게 준비시켜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원쑤들  
의 정수리에 명중탄만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  
일당백포병대렬을 늘어나  
킬데 대한 문제 등 포병무  
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는 일당백포병들이  
울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둔을 열었고 한해의 바람  
을 정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싸움준비완  
성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  
데, 뜨는 탈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낼으로써 일당백  
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  
을 높이 울리자고 말씀하시  
었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  
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  
에서는 조선인민군 제8군  
단판하 방사포병중대가  
1등, 제3군단판하 방사포

병중대가 2등, 제7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  
가 3등을 생취하였다.

사격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정위한 조선  
인민군 제8군단, 제3군단, 제7군단, 제10  
군단, 제9군단판하 방사포병중대들에  
명포수상장과 명포수메달, 명포수휘장이  
수여되었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사격경기참가자들은  
정초부터 한해의 마지막달까지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면서  
일당백포병들이 멀적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  
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상가 드리면서 훈련장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포병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  
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길영조영웅  
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야간에  
불의 출동에 의한 추격기들의  
지상대 상물습격훈련을  
통하여 항공군안의 모든 부  
대들이 실전에 접근한 실용  
적훈련을 진행하도록 힘으  
로써 전투비행사들을 적들  
의 그 어떤 대상을도 무자  
비하게 격멸소탕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 길영조  
영웅추격기련대에 불의에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  
서 전투능력을 직접 판정  
검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  
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라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  
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라영길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라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인 항공군상장 김광혁동지와 군부  
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류장에 나가시여 추격기들의 출격준비  
상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  
비행사들을 미대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12월의 하늘가에 올려퍼질 불은 매들의  
죽음소리를 생각하니 생애의 마지막시기  
에도 전투비행사들을 위해 마음쓰시며  
사랑의 유훈교시를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  
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전투비  
행사들이 날으는 항로는 장군님 가까이로

가는 걸, 장군님과 맷은 정을 펴줄  
처럼 간직하는 걸이라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는 김시소에 오르시여 아간습격전투비행  
훈련진행학도를 보시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으로부터 결심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  
한 지시를 주시였다.

지침을 구르는 철동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헌속 날  
아오른 추격기들이 순식간에 이동속으로  
사라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신  
항로를 따라 멀찍이 비행을 새기며  
정확하게 날으는 추격기들의 비행항로가  
영상표시장치에 현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추격기들이 정확히 날고 있는가  
를 손금보듯 볼수 있다고, 전투비행사들  
이 비행체제유지를 잘한다고, 비행지휘

의 파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  
하였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드디어 추격기들이 순차적으로 목표  
상공에 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  
이라면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지재  
하고 구름속 전리, 불길속 만리라도 놓고  
나가 칠 량자들의 본거지들을 말끔히  
소탕해버릴 일당백불사조들의 천백배 복  
수심이 만장연은 온갖 배들에서 폭탄을  
이 투하되고 목표섬에서는 화왕이 충천  
하였으며 우뢰같은 폭음이 천지를 진갈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목표들

을 겹타격하는 장쾌한 광경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를 보시면서 명중이라고, 야  
간이 아니라 대낮에 진행하는 훈련을 보  
는것만 같다고, 정말 흥쾌하다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크게 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  
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

하는것이지만 조국의 항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  
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오늘과 같은 훈련을 계속 진행하  
여 전투비행사들을 그 어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  
사로 충실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야간습격전투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영웅한 붉은 매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켜보시는 활주  
로 위에 가볍게, 멎 들어지게 착륙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려운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불의에 진행하였  
는데 밀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불굴  
의 조국수호정신, 육탄자폭정신을 지닌 하  
늘의 결사대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격에 겨워 눈굽을 적시는  
전투비행사들의 손을 드겁  
게 잡아주시며 담대한 심장  
이 없인 도저히 수행할수  
없는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  
에서 발휘한 전투비행사들  
의 불굴의 정신을 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재부라고, 이런 훌륭  
한 비행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  
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하시  
면서 부마의 전체 비행사들  
과 군인들, 군인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  
비행사들이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리며  
낮이나 밤이나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날고있기에 오늘과 같은 불리한 정황속  
에서도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  
하였다고 하시면서 길영조영웅추격기련  
대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하늘같은  
은역을 베풀어주시였다.

길영조영웅추격기련대의 전체 군인  
들은 전투비행사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밀음파 정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전군의 모범으로 내세워  
주신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생활화해  
나감으로써 언제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에 백전백승의 비행을 아로새겨 갈  
불리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과 그이의 위대한 헌생을 높이 창송합니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발전을 이룩하고 조선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길에 투철한 업적을 쌓아올려시켰습니다.

각하께 나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2016년 11월 24일

칼럼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철체 당원들과 저 자신의 이름으로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의 충직한 계승자이신 당신께서 계시기에 김정일동지의 선군 혁명사상과 선군혁명업적을 온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결대성을 표시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도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6년 12월 5일

메히꼬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혁명사적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가 정양고루공장, 홍남전극공장, 사비원기초석출공장에 전립되었다.

정양고루공장에 전립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원래 한 명도자로 향기를 풍기면서 평화로운 김정숙동지께서 공장에 거룩한 명도의 자주색을 달고 활약하여 질 좋은 전국을 많

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부어주시고 어려가지 고루제를 울 많이 생활하기 위한 방향파방도를 완히 밝혀 주신 내용이 담겨져있다.

주제 42(1953)년 10월 17일 공장을 찾았던 김정일동지께서 전생으로 하여 헝어진 기능들을 모집하여 전국직장원 부구하고 설비판리를 잘하여 질 좋은 전국을 많

에게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부어주시고 어려가지 고루제를

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부어주시고 어려가지 고루제를





## 주구의 장단에 놀아난 오바마의 대조선정책

세상에는 날의 말을 엉무새처럼 그 대로 되받아와 웨데다가 머저리 위급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

초대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가 선무당에 푸두각시에 불과한 박근혜의 『북봉피설』에 놀아난것이 딜링 드러나 국제사회의 조소거리로 된것을 놓고 그 떻게 말할수 있다.

얼마전 미국의 인터넷통신 **CNN NEWS**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오바마는 조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차 『봉피』를 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조선은 불안정한 노보라는 것은 찾아볼수 없다. 경제는 정상하고 사람들은 회망에 넘쳐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복전으로선의 승리를 달래주는 것이다. 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봉피』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는데 오바마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조선의 『봉피』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조선의 암시를 말은 박근혜의 입김이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세웠기때문에 완전히 실패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세계체제에 환장이 되어 오만방자하게 놀아내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조종이다. 하다면 세상 돌아가는 현현을 다 안다고 하는 미국이 어떻게 되어 이런 지경에까지 굽어鞠躬되었는가.

봉은 우파에 대한 오만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대조선정책이라는 걸파이라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오바마는 집권초기 부터 우파 공화국을 고집압살해 보려고 말작으로 나왔다. 특히 백합공포학과 혁진학파학기를 비롯한 전쟁장비를 유통·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여밀고 우파의 종심에 대한 학력연습을 벌여놓았다.

임단 벌리면 우리의 핵포기론 떠들며 국 제적 압력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미쳐 날뛰었다. 미군부와 정제의 고위인물들은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광 『봉피』에 이어질것이라는 말을 미구 늘어놓았는가 하면 『봉피』에 따르는 유사 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참모대 같은 살소 비도 페쳐졌다. 나중에는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고 떠벌이며 싸이버仙境에 의 한 정보로 유통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를 『봉피』시켜야 한다고 악설을 퍼부어 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봉피』는 그것이 아니라 원하에 둘도 없는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우에 데 우뚝 올라섰다.

이 세상의 『절대명기』로 불리우는 수소 탄까지 보유한 우파 공화국의 전략적 위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종착점 되었다. 그렇기 고대 하면 우파의 『봉피』 방상은 미국의 목을 조이는 전략적 힘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이 새로운 절단을 내려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지 않은 결과 구조에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하기는 달리는 힘수 없었다. 우리에 대한 부지에도 있지만 텅자에 어울리지 않게 세면도 없이 아득기정적인 박근혜파가 되어 『봉봉피설』을 떠나와 외워더며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라는 말자체도 모르고 자기의 특별한 주권도 주도도 없는 박근혜는 선무당으로 불리우는 최순실이 당기는 끝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형에 불과하였다.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서로 지지해하고 막후에서 조종한것은 의 순실이라고 하는 일개의 사이비종교인,

선무당이었다. 박근혜는 모든것을 이 무당에게 의탁하고 그가 하라는데 헤바 닥을 놀리고 웃지이었다. 『데북침미전방』을 재하고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하고 하자 그것을 제적 받아들고 실행하였다. 제정신없는 선무당이 『2년내에 북이 봉피될것』이라고 했으니 뭐 아니하고 얼토당토않은 주문을 외워대자 그것을 『신령스러운 계시』로 받아들이고 『북글봉사대』와 『북제제봉피』를 넘 불처럼 떠들어댔다. 결국 이것을 그대로 대조선정책에 반영한 오바마는 보잘것 없는 무당의 경계에 놀아났으로 되었으며 세계의 웃음을거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며 회한한 정치안화이다.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은 원천히 거칠었다.

세계가 박근혜는 물론 오바마도 무당의 좁두각시노릇을 하겠다고 애유조조하고 있는것은 당연하다.

우리에 대해 이루도 모르는 주제에 허제비 같은 박근혜파의 말만 물어들고 문벌없이 날뛰던 오바마로서는 참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이 새로운 절단을 내려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지 않은 결과 구조에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하기는 달리는 힘수 없었다. 우리에 대한 부지에도 있지만 텅자에 어울리지 않게 세면도 없이 아득기정적인 박근혜파가 되어 『봉봉피설』을 떠나와 외워더며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파가 상관할비는 아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시간이 갈에 따라 사상과 그 뿐만 찾을 수 있는 특대형진 럭부제사진내아이 계속 밟혀지고 있다.

박근혜당은 떠는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당은 여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출로를 우리 공화국을 자극하는 도

## 우리의 핵역제력 강화는 정당하다

최근 중국신문 『한국시보』가 『중국의 군비와 전략핵무력은 아직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된 평을 발표하였다.

돈령의 요점을 추여 설명한다면 미국이 무역, 대안분체와 관련하여 중국을 모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것. 그에 대처하여 중국은 굉장히 미국과 대등한 전략핵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력 강화는 중국이 마음놓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시보』는 돈령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의 도수는 주변 대국들이 막는것과는 대비할수는 정도로 엄청나다. 하나의 지역으로 잇닿아있는 우파의 렘도는 블로 깔라져있고 남쪽 절반방은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점령되었다. 미국의 핵전초기지들은 예전에 개발되었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쌓아들이고 우파의 최고군을 해치고 자주권을 유린당하기 위한 핵전쟁소통을 끊임없이 벌리고 한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가 어디에 있나 하는것이 굉장히 밝혀져있다.

그것은 명실공히 핵무력강화이다.

중국의 역사가 이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항일전쟁과 세차례의 대국내혁명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후 중국은 핵력강들의 끝임없는 군사적위협공갈과 내정간섭이라는 고발은 시락을 풀고자 하는 사회진실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끝증이나, 도전이나 하는 향자역의 일의 칼럼에서 중국은 역사적인 도전의 길, 핵보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대가로 얼마나 깔비한것인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다. 많은 회생과 고통을 힘들게 이겨내면서 중국은 물질과 정신으로 힘들게 힘들고 있다.

총진인 박근혜당의 운명이 원전히 전기만나기 전에 『짜드』비를 끝내자는 것이다.

여기 탐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우수는 없는 미국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국들을 군사적힘으로 제압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에는 번번이 있다.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해 피씨들을 부추겨 우파의 대결에 대내를 몰아온 용당한 대용조치를 유발시켜놓고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짜드』비를 정당화하며 하고있다.

아시아에 대한 핵전쟁으로서는 우파의 핵전쟁당지역에서의 영향력도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날로 커지는 영향력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예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미국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제균형전략이 누구를 겨냥한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다음에 세로를 통상할 미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이 서둘러 『짜드』비를 성공시켰을 때마다 우파는 지금 하나의 중국원칙에 기초하였다고 하는 중미간의 협력이 차지의 힘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미국이 우파의 핵포기를 실현해보겠다는 것은 허락한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누가 뛰라고 하든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균형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역제력을 배양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현실은 광대한 명도와 수많은 인구, 큰 경제력과 핵무력력을 아직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된 평을 발표하였다.

하물며 미국의 적법적인 핵위협을 향시적으로 밟고있는 우파나라가 핵역제력을 강화하는것은 너무도 용당하다.

명도도 많지 않은 우파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받는 핵위협공갈의 도수는 주변 대국들이 막는것과는 대비할수는 정도로 엄청나다. 하나의 지역으로 잇닿아있는 우파의 렘도는 블로 깔라져있고 남쪽 절반방은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점령되었다.

미국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의 담보가 어디에 있나 하는것이 굉장히 밝혀져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사회제도가 저들의 세계와 다르고 우파군대와 민족이 저들의 강에 굽복하지 않는것이 미국의 핵위협공갈과 재제압을 밟아야 할 이유로 될수는 없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행정부는 험프리보상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은 반기기상에 걸쳐 우파의 핵위협공갈에 대응하기 위해 험프리보상의 담보는 다른이 아닌 우파의 자제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저들의 식민지노에 만들기 위해 재제압을 이어나가고 있다.</p